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英國政黨의分解途程

一

英國에잇서서는 오래동안保守自由兩黨의對立을보게되엿섯다 그리하야 英國內閣은一千八百四十六年以後一千九百二十四年外지는 이兩黨中의 一黨이組織하거나 또는이兩黨이聯合하야 組織하엿섯다 그리하엿더니 一千九百二十四年初에 일으러서는 勞働黨이重要한勢力으로 英國政界에出現하게되엿다 이에일으러 保守黨과自由黨은 政權을勞働黨에게 讓渡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엿다 그리하야 勞働黨首領『맥도널드』氏가 一千九百二十四年一月二十二日에 勞働黨內閣을組織하게되엿다 이것은 英國의十七世紀革命以後의重大事實로 看做되엿섯다

二

勞働黨은 그內閣을오래維持하지는못하엿섯스나 國際間의空氣를크게緩和함을어더 資本階級의政治家들에게 勞働黨도統治해갈수잇다는것을 實際로表示하게되엿다 勞働黨內閣이組織되자 곳『쏘베트』露西亞를正式으로承認하고 『또스』案의實現에 매우努力한바이잇섯고 또國際聯盟의地位를 數層高히엿섯다 社會主義的立脚點으로보아서는 英國勞働黨內閣의處置에對하야 여러가지論評이잇슬수잇겟지마는 人道主義的立脚點으로보아서는 그功勞를多라고하지아니할수업섯다 그內政上에잇서서도 十五年間에 二百萬軒의住宅을 建築할法律을制定하야 勞働者의住宅難을救濟하려고하엿섯다

三

保守黨과自由黨이 勞働黨으로하여금 政權을掌握케한것은 決코 勞働黨에對한好意에서나온것이아니라 自己네들의不和함에 由來함이엿섯다 그當時勞働黨은 下院에잇서서 겨우一百九十二個의議席을가지고잇섯슬뿐이엿섯스니 그것이下院의過半數를得치못하엿고 保守黨도過半數를得치못하엿고 自由黨도 또한過半數를得치못하엿섯다 그럼으로 聯立內閣을組織하던지 그러치아니하면 他黨의援助를엇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엿섯는바 自由黨은保守黨과握手하기를 실혀하고自由黨은 겨우一百五十의議席으로써第三黨의地位에잇섯슴으로 그勞働黨을援助하게되엿섯다 그러나 英露協約問題에對하야自由黨은 勞働黨의가는길을갈수업게되엿다 그럼으로 自由黨은保守黨과聯合하야 勞働黨內閣에對하야 反對하는態度를取하게되엿섯다

四

이形勢를看取한 勞働黨內閣은 一千九百二十四年十月九日에 斷然히議會를解散하고 同月二十九日에 總選擧를行하게되엿다 그結果는保守黨의大勝利가되엿다 그리하야 勞働黨內閣은 十一月四日에辭職하고 保守黨首領『쏠드윈』이 內閣을또다시組織하게되여 지금外지繼續하고잇다 그런데 一千九百二十四年十月의英國總選擧에잇서서 또는그前年十二月의總選擧에잇서서 사람의注目을끌게된것은 自由黨의沒落이漸次進行되여간다는事實이엿다 自由黨은 英國政界에잇서서 由來한政治家『글렛스톤』이며또世界大戰中에 有名하게된『로이드、죠지』氏等은 自由黨의驍將들이엿섯다 自由黨은一千九百十八年의上院改革 一千九百十八年의選擧權擴張으로써그任務를 다마친感이잇다 그리하야그는 그進行係의任務를勞働黨에게내맥긴觀이잇다

五

一千九百二十三年十二月의總選擧에잇서서 一百五十四名의代議士를어덧던自由黨은一千九百二十四年十月의 總選擧에잇서서는 겨우四十餘名의代議士를 엇게되엿다 勞働黨은 一千九百二十三年十二月의總選擧에는 一百九十二名의代議士를어덧고 그翌年十月의總選擧에는 一百五十一名의代議士를어더 四十餘名을減하엿스나 得票數는前年度의四百五十萬에對하야百萬의增加를現出하게되엿섯다 그와가티되엿슴으로 勞働黨은그損失을 그다지憂慮할必要가업지마는 自由黨의敗績은그것은一時的이아니요 決定이라는感이잇다 獨逸의形勢를보더라도 英國의自由黨에相當한民主黨의地位는매우薄弱하게되고 兩方에屹然히對立하게된것은 社會民主黨과 獨逸國民黨이다 英國에잇서서도 이와가티進化되여가는것갓다 그리하야 獨逸의社會民主黨에相當한勞働黨과 獨逸國民黨에相當한保守黨이對立하게되고 自由黨은漸次縮少되여갈運命에잇다고보는것이妥當하겟다

六

이趨勢를明白히表示한것은最近에 일어난自由黨領袖의脫退問題이니 二十五日의倫敦電에依하면 自由黨領袖『사·몬드』卿은 自由黨을脫退하야 保守黨에入黨하엿는데氏는 自由黨首領『아스키스』氏에게 書簡을보내여『로이드죠지』氏의主張하는 新土地法案은自由黨員의結束을危殆케하고 그步調를攪亂케하엿슴으로 同黨을爲하야 今日外지盡力한氏의勞力은 水泡에歸하엿다하야그行動의理由를說明한바잇섯다 지금우리는『로이드죠지』氏의主張하는新土地法案이라는것이如何한內容을가진것인지 詳細히알수업스나 그에反對하는사람이 保守黨으로들어간것을보면 그案의內容이 얼마큼土地에對한個人의所有權을制限하는意味의規定을包含한것인것을推測할수잇나니 이와가티하야 自由黨은 이土地法案을中心으로하고 兩分하야保守黨에接近하는派와勞働黨과接近하는派를生하게될것이다 그러면 더욱保守勞働兩黨의對立의關係는 明白히實現하게될것이니 우리는英國政黨이 資本勞働二黨의對立을目標로하고 急速히分解되여가는途程을 現然히보는바이다

獨內閣僅得信任 百六十對百五十票로

(벨도二十九日發) 獨逸內閣은一六〇에對한一五〇票로僅히議會에서信任을得하엿더라

노港의將來는 歐洲化하리라 ◇…佛紙評

(巴里二十九日發) 巴里『노르탄』紙는四月로부터亞米利加汽船會社의定期船이 모다佛蘭西『노르투아풀』港에歸港하게될旨를報하야如斯히되면同港은佛蘭西의港이가아니요歐洲의港이가되리라고述하엿더라

米陸軍卿來日 中國도視察

(桑港三十日發) 米國陸軍卿『데비스』氏는六月頃日本에渡來하야中國外지視察하기로決定하엿더라

日勞働者驅逐事件 米當局의證據調査完了

(도레도二十九日發) 昨年七月日本勞働者若干을棍棒으로逐出한後곳『도레도』市로부터驅逐한騷動에關하야米國當局의命을受하고其證據를調査中이든代陪審官은二十九日該事件을再審에附치안코意見書는上局에提出하엿는데但日本官憲側에서는地方官憲에對하야本件暴動의主謀者를處罰할措置를執하지말다는要求를하는中이라고報道되더라

葡國上院 딴지루條約批准

(벨도二十八日發) 葡萄牙上院은『딴지루』條約을批准하얏더라

湖北軍前進으로 國民軍確山에退却

(漢口二十九日發) 本日朝湖北第一師는京漢鐵道東鏈河驛을突破하엿슴으로信陽에잇던國民軍第一師는確山方面에退却하엿더라

關稅會議에對한 日本政府의態度는 ◇…二分五厘案을放棄키로

(東京電) 中國關稅會議에對한日本政府의對策變更에就하야는佐分利通商局長의歸京以來外務省並關係各省間에數次協議를거듭하든바其結果從來의二分五厘附加稅案을放棄하고新案에依한平均一割二分五厘의程度의差等稅率案으로써此에代하기로決定하엿슴으로外務省에서는右稅率變更問題에關하야大阪方面實業家側의諒解를求할必要가發生하야木村亞細亞局長은三十日關西에向하엿는데歸京後佐分利局長은本省과協議한後來月…

若槻內閣初會議 豫算案은再提出 其他諸案은從前審議

(東京電) 若槻內閣의初閣議는卅日午後一時半부터首相官邸에開會各大臣全部出席若槻首相으로부터新任의人事가有한後二月一日議會再開의際에在하야施政方針演說에就하야審議決定하고更히目下提出中인豫算案은審議期間의關係上此를撤廢하야再提出의手續을執하기로하고他諸法律案은그대로審議繼續하기로決定하엿더라

四、五日間再次北京에向할터이라더라

議會延長決定

(東京電) 加藤首相逝去로停會가된帝國議會는四日開會期를延長하기로三十日의若槻內閣初閣議에서決定하엿더라

辭令

朝鮮林野調査委員會書記兼總督府屬 吳在淳
任郡守(七等)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吉田酒吉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休職總督府檢事 韓陽
依願免本官 總督府消警視 菅崎淳一

高等試驗改正 二月一日發表

(東京電) 文部省은高等試驗의改正을行하야專門學校入學檢定試驗令을植民地에도實施하기에至하엿스나今回高等試驗令第七條及八條에改正을加하고高等學校入學檢定試驗을一般植民地에施行하기로되여二月一日의官報로發表하게되엿는데同受驗科目은日語、漢文、歷史、地理、數學、物理化學의七項目이라더라

女高位置問題로 益山郡民大會 三百五十八人이出席하야 期成會組織과常設機關

全北裡里에서女子高普位置決定問題로益山郡民大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去二十九日裡里座에서大會를開催한바出席會員合三百五十八人으로吉田竹治兩氏의趣旨說明과經過報告가有한後臨時議長을選擧한後女高設置期成會를組織하고左記諸項을決定하얏다더라(裡里)

◇決議文
今回本道에設置코자하는女子高等普通學校는本郡現下情勢로보아此를裡里에設置할것으로認하고吾人은徹底的으로目的의達成하기를期함

◇決議
一、道當局과學務局에陳情書를當月內에提出할일
一、女子高等普通學校設置에對한運動의常設機關을設置할일
一、費用은常設機關委員에게一任할일

◇委員 吉田竹治 山崎瑫平 李泰敎 金炳熙 外益山郡各面面長十八人合二十三人

裡里精米糊摺 人夫組合創立

去二十八日裡里日出町李同燮氏家에서裡里精米糊摺人夫組合을創立하얏다는데任員과決議는如左하다더라

◇任員 組合長裵憲 總務徐理寬 財務兪東詰 司察李同燮 幹事禹學奉 許化春 姜在洙 金時同 蔡奎益 崔文學 姜士奉 成斗殷 金學善 李興燮 崔京先 徐春鏞 吳判龍

◇決議 一、組合事務所設置에對하야는任員會에一任하기로함(裡里)

鮮于梨夫人 廿五週年紀念

平壤長老敎宣敎師로現崇義女學校長인鮮于梨夫人의二十五週年紀念式을都諸職會와崇義校卒業生及敎師와在學生의主催로豫定과가티去二十九日西門外禮拜堂內에서盛大히開催하고金愛喜孃이同夫人의畧歷을朗讀하고吉善宙牧師가祝辭를陳한後各代表로…

新光青年創立

光州에서는光州十餘人의發起인新光青年會는去二十八日光州育英會館內에서創立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吳洪根氏司會로規則을通過하고任員을左와如히選擧하엿는데同情金도二十圓이나드리왓다더라

◇任員 總務部 崔烽 李總基 李判玉 敎務部 李宜東 金畯中 劉桂潤 財務部 崔錫洙 金明奎 金永會 調查部 鄭倫模 李內基 河權淡 體育部 金弘進 李允 鎬 朴俊相

牛解禁은 二月五六日頃

元山畜牛檢疫所에서는來月十六日江原道畜牛五十二頭의檢疫을마치고發送하야敦賀에輸送하엿는데敦賀檢疫所에서三日間을留한後二十三日에全部無事이解放하엿다는電報가왓슴으로牛肺疫으로因하야輸出禁止를當한咸鏡南北平安南北四道의各檢疫所에서도蓄牛의結合試驗의準備를하는中이며元山檢疫所에서는準備를完成하야一時網內에서試驗할수잇게되엿스며試驗場의新設은解氷을待하야建築할터이라는바解禁期는아즉不明하되各所에서準備만完了되면二月五六日頃解禁命令이잇슬터이라더라(元山)

感激할만한 一金拾壹圓也 新光青年會 創立費補助

去二十八日光州育英會館에서新光青年會가創立當日議事進行中勞働服을입은十二歲未滿의靑年二名이突入하야一封書를提出한바一般은一時驚訝하얏다가內容을讀破한後無限한喇叭과感激을受하얏다는데그封書는如左하다더라

◇請願
一、金十一圓也
貧寒에시달린吾等은平素에希望과企待가만하든光州青年會의會館이落成에갑작히燒失되여悲報를드른後悲嘆으로終日토록店房에淚沒되는몸이故로赤誠을表코자하엿더니幸인지不幸인지近日에突變된同會의情勢을못하는代에적은돈이나마모히여貧寒婦의한푼捐助나다름이업는同會館再建의工事에몸으로賦役이라도하고저하든바이나마鮮少한金錢은一笑柄에不過할슴處가不無이든바幸히우리와處地가比等한여러동무의손으로提起된新光青年會의誕生을반기드고出金者一同의協議를經하야右金額을貴會創立費의萬一에補用하시도록玆에請願하오니醵金의目的은前後가不同이엿스나前途의決定은全員이一致된것만으로諒解하시고반가히바더주시면吾等은無上의滿足으로思惟하겟나이다

一九二六年一月二十八日
光州店鋪勞働者有志一同
新光青年會創立總會 貴中

講演도講談도 一切로禁止

開城新興靑年의結社인松都靑年會에서는新春을當하야文藝講演會와道藝正初音樂會를開하야開城靑年運動者懇親會를催코저警察當局에數次交涉中이든바開城署高等係主任은自己一個人으로는許諾할수업스니署長과相議決定하야通知하마하고此日彼日미루워감으로去二十八日該會執行委員孫洪燮氏가當局에가서여러가지로準備할것도잇스니可否間速히決定하야달라하얏든바警察當局에서는『당신네들의集會는恒常不穩하야許可할수업다』함으로여러가지로質問한바가잇섯스나終是듯지안코禁止를命하얏다는데一般市民은開城警察의爲懸政策을非難한다더라(開城)

樵夫四十餘名을 郡警이戮力逮捕 郡廳臺下에列立하고 『지게』等屬을沒收後驅出

水原郡日荊面正北에聳立한光敎山은數百年以來國有林으로該面民은勿論水原台章儀旺谷面民의柴草採取場으로누구나燃料를此山에資하더니數年前京畿道地方營林으로查定된後水原郡廳에서는造林에留意하여왓스나慣例에依하야年來柴草採取는默認하엿섯다가昨秋부터는柴草採取도絕對嚴禁함으로屢屢히山監과樵夫間에葛藤이生하얏섯는데去二十六日下午八時부터同十時三十分外지水原郡廳에樵夫四十餘人과其他數十餘人이羣集하야一大混雜을致하엿섯는데其內容은즉當日水原郡廳員五人이警官二人과協力하야現場에出張하야樵夫逮捕에努力한結果前記四十餘人을…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우리의살길!

◇죽겟다못살겟다하는生活難의高聲이朝鮮江山에울리운지이미오래엿다 事實이다 經濟의破滅을當한데더욱科學의普及치못한朝鮮人生活은이대로지내다가는不過멀지안허朝鮮全體에는外人의기름괴만돌것는숨김업는統計數字가明明白白하게證明한다 우리唯一한全資本인沃土는大部分누구의것이되엿스며이른봄부터느진가을外지애써지여노흔穀食은누구의倉庫를채우는가?

◇아!朝鮮은國際的푸로階級에陷落하엿다 우리朝鮮人勞働者는技術이不足하야 外人勞賃의半額이되는金錢을밧는反面에一人에게달린生命은數十人이다 더욱히自己의生道를自己로엇지못하는失業者의數는 世界에比하여 優等의地位를엇기에少毫의不足된感이無하다

◇녀두조아들은小作人의피를빨기로處世術을삼으며그네의아드님들은酒肆靑樓에서독갑이창물(酒)에精神을일코淫逸한노래를『되여가는대로살자』를부르지즈며恒心이업시歲月을보내는者도만타 筆者亦是그런사람의하나이다

◇아!이러한狀態로서우리社會의不完全과白衣民族의貧弱이不可避할것을알겟다努力업는곳에成功이업는것이眞理이면失業者만흔곳이貧弱한것도眞理일것이다 녀두조아諸氏여倍達魂의苛責을밧거든小作人의피땀을不正搾取하야豪奢安逸하기로일삼지말고同族無產大衆을爲한蕩産으로工場이나마세울지며『노자노자젊어노자늙고病들면못노리라』를부르는대신에『일하자일하자젊어서일하자늙고病들면못일하리라』를부르지즐지어다

◇『되여가는대로살자』하든厭世主義者여!희망업는空想樓閣이나지으며그러치안흐면不出主義나厭世主義니하는우리의속업는看板을求하여萬人之長이되며二三層洋屋에서理想生活의虛榮을夢想하는하이카라輩여!無用의꿈을깨고實業方面에힘쓸지어다

◇『되여가는데로살자』하는厭世同志여!될수잇는대로배우자!自習도좃코苦學도좃타!돈벌기에힘쓰며똥통을메고발등벗고나서자!남어지時間에는十圓月給의官吏生活만求하지말고農村振興에힘쓰며無產兒童을가르치자! 그리하야失業者를업시하자!(警告生K)

三災當한農民에게 地租、水稅、肥料代도徵收 同仁水組蒙利區域內살수업는作人의歎願

平北定州郡古德面雲田、觀海兩洞小作人姜震昇外四十八人은同仁水利組合百餘地主에對하야小作料減額의關係로減賭하야달라는陳願書를定州郡廳及道當局에提出하얏다는데그內容은同仁水利組合蒙利區域에在한三千五百餘町의土地는昨年水風虫三災로因하야農作物이全滅하얏슬뿐만아니라該區域의土地에서農作하는農民은秋收場에臨하야水稅와大豆粕代金으로全部가地主手中에歸하고一年間櫛風沐雨로耕作한小作人은一包穀을得치못하고目下朔風雪寒에抵할情勢이라하며結局人煙이絕滅狀態에陷하게되엿슴으로이와가티陳願을한것이라더라(定州)

輪友會創立 廿五日金泉에서

金泉郡에서는去二十五日金泉大和町에서金泉輪友會創立總會를開催하엿는데綱領及任員은如左하다더라

◇綱領 一、우리는團結의精神을目標로하여相扶相助의親睦을期함 一、우리는科學的敎養으로各自의人格의向上을期함

◇任員 一、庶務部 白永欽 辛永福 張永桐 崔漢江 一、敎養部 盧永五 李宗民 李八率(金泉)

西鍾災民救濟

黃海記者大會는去二十六日부터三日間海州靑年館內에서開催한다함은이의報道한바어니와二十八日大會席上에서는地方報告를接受할時에鳳山郡西鍾面土旛에서生活하는二十一戶八十三人에게多少同情하자는것이可決되여當席에出捐한同情金이…

豐田蹴球大會

永興郡德興面豐田里豐興靑年夜學會는組織後三個星霜에會員四十餘名이講習討論한結果成績이매우好良한中더욱嚴爾히點을表彰키爲하야同會長李尙熏과運動部長嚴柱南氏外有志者金芳熙、嚴柱華、尹道鉉諸氏의熱誠으로去二十四日第一回靑年蹴球大會를開催하엿는데各團體의選手의勇敢한氣勢는三百餘名觀衆을驚嘆케하엿스며龍興靑年執行委員長金元鎬氏審判으로優勝旗는同面濱南里協成團에歸하얏다더라(永興)

元山의『설』警戒

元山警察署에서舊曆年末年始에特別警戒班을組織한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來月二日부터十四日外지非番巡查와當番巡查를總出케하야元山中上兩里方面을警戒할터이라더라(元山)

抱川의模範學生

抱川公立普通學校第六學年朴泰信(一八)은學績이優良하며操行이方正하고性格이溫順하야一般學生이며諸先生에게稱讚을밧아오든바去二十六日道에서온賞品及賞與金賞狀等을授與하얏다더라(抱川)

罰金收入이 近七千圓

昨年中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에서罰金、科料其他徵收金總額이六千七百五十九圓인데其中罰金이五千六百十九圓、科料가百四十圓、追徵金이八圓이라더라(元山)

安城青年會 會館建築努力

京畿道安城邑內安城靑年會去二十八日執行委員會에서는金台榮氏로부터安青學院盟休事件顚末報告가잇슨後會館建築問題에對하야여러가지로討議한結果不日內로着手하기로決定하엿는데會館建築에會員의義捐金과父老의贊助金으로充當키로하고建築에關한事務와義捐金募集은會館建築委員四氏에게一任하는同時建築委員은全部如左하더라 宋丰衡 金相應 金昌培 金台榮 朴勝鏞 閔敬鎬 李正鎔 尹璟 朴建鎬(安城)

沙里院西部敎會

…二十七圓에達한것을沙里院代議員에게一任하야救濟하라고하얏슴으로沙里院代議員은此를領受하야來二月五日에는分給하게되리라더라(沙里院)

沙里院西部敎會靑年會에서는지난二十四日當地西部禮拜堂에會集하야緊急協議會를열고救濟方針을討議하야西部敎會靑年會其他有志의同情米三包를得하야來二十九日會員幾人이直接現場에나가서實地調查를한후에分配하기로決議하엿다더라(沙里院)

農校設立期成 委員會開催

星州에서農業學校設立期成會를組織하엿다함은既報한바이어니와同期成會에서는農校設立에對한方策을討議하기爲하야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委員會를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하엿더라(星州)

梨德里蠶業講習

利原郡西面梨德里에잇는李鍾在李容勳、鄭鎬諸氏의發起로當地耶蘇敎堂內에서去十日부터蠶業講習會를開催하얏다는데講習婦人이三十五名이오講師는咸興蠶業學校卒業生인李明順孃이라더라(利原)

森信商會 主人兪鎭植氏

江華森信商會主人兪鎭植氏는江華仁川及黃海道延白郡間의航路를開하고一般交通에貢獻이多大하던中仁川汽船會社의無理한壓迫으로一時打擊을밧던바今番同商會의內容을大大的으로刷新擴張하는同時該商會收入金一割을當地江華中央靑年會에寄附하여適當한事業費에充當케하야달라고하얏슴으로該中央靑年會에서는當地合一學校에補助하기로되여同校의維持에對한問題가解結되얏다는데一般은兪鎭植氏의篤志를稱讚不已한다더라(江華)

大串面共助組合

金浦郡大串面共助組合은大正十一年十一月에面內有志諸氏의發起로創立되얏는데會員이一百五十名이며其間會員들이一年에正租大斗一斗式(一口에對하야一斗比例)捐出한것이現今一百二十石에達한바面內極貧者들에게限하야一石에二斗五升의低利로貸與하야生活의安定을주다더라(金浦)

櫻井就航 來二月부터 元山淸津間

朝鮮郵船會社에서昨年부터淸津雄基港間의連絡船을航行케하야元山淸津港間의連絡船과接續케하야多少의便宜를圖하엿던바昨年夏期에突然히中止하엿다爾來로雄基地方商業家의無限한不便을惹起하든此際에來二月부터櫻井丸을就航케하야元山淸津港間의連絡을接續하리라더라(元山)

冠東講習維持難

聞慶郡加恩面鵬泉里冠東講習會는六年前創立으로將來無產兒童敎養에만흔功努가잇섯스며面內…

女子蠶講卒業式

晉州郡晉州面川前里同所敎室에서는去廿六日晉州女子蠶業講習所에서第三回卒業式을擧行하야卒業生三十八人에對한證書授與式을하고來賓祝辭及卒業生總代李潤玉金命守兩孃의答辭를畢한後閉會하얏다더라(晉州)

牛疫豫防注射

遂寧郡下端面新院管內에는牛疫이發生하야牛斃死가不少함으로黃海道警察部에서는原川獸醫를派遣하야去二十六日부터二十八日外지三日間新院牛市場에서豫防注射를施行하엿다는데施術한牛數는二百餘頭라더라(新院)

鐵山基靑總會

鐵山基督靑年會에서는來二月七日午後三時同會臨時會館에서第六回定期總會를開하고左와如히重要事項을討議한다하며一般會員들은適滿會集키를企望한다더라
一、各部經過事項報告의件 一、規則修整의件 一、任職員改選의件 一、新年度豫算案通過의件 一、其他事項

特志美行

◇孝子의斷指 南原郡德果面晚島里姜正吉氏는客月二十七日頃七十歲된그父親老病에無名指를截하야鮮血을試用한結果甦生되야五日間의生命을增延하얏다더라(南原)

◇敎育에熱心 淸道郡華陽面合川洞李鍾根氏는同洞勞働夜學에無報酬로敎鞭을잡고全力을다하야五十餘名生徒敎養에熱中할뿐만아니라生徒用品外지無料供給한다고

◇恤貧과頌德碑 扶餘郡九龍面東芳里에사는靑年朴成鎬(二二)氏는東芳里五十餘戶에三百餘圓으로滿洲粟을購入配給하얏슴으로그를頌德하기爲하야救濟바든貧民들은地方街路에石碑를立하야德義를表彰하기로去十八日東芳里民會에서決議하엿다고(江景)

◇學用品供給 任實郡只沙面溪山里姜凡熙氏는大正十三年以來三年間繼續하야自宅에夜學講習所를設置하고學生二十餘名의學用品과柴油炭等을自擔한다고(任實)

統計彙錄

◇松都面人口 開城郡松都面의人口數는男子二萬一千二百三十八人女子二萬四千五百五十七人合計四萬五千七百九十五人으로大正十三年十二月末日調查보다는男子四百二十八人女子二千一百八十二人合計二千六百七人의增加를示하얏다는데全朝鮮都市中人口順位로보면第五位에處한다고(開城)

◇元山支廳民刑事 客年中元山支廳에서取扱한刑事民事訴訟事件은總數二千四百七十四件인데刑事事件에朝鮮人一千二百十二件、日本人一百四件、外國人七件、特別法犯朝鮮人二百二十四件、日本人二十七件、民事에朝鮮人五百六十四件、日本人一百六十四件、外國人이三件…(元山)

◇元山支廳登記料金 客年中元山支廳에서取扱한登記料金合計四萬一千一百三十四圓인데不動產登記七千八百三十二件의料金…船舶登記…商業登記…金融登記…右金四萬餘圓의收入을示하엿다고

◇咸南大豆實收 咸南의特産物인大豆는二十八萬四千六百八十三石에達하야前年度二十八萬三千七百三石에對한…의增收가되엿고小豆도前年…石을凌駕하야五萬三千九百十四石으로二萬二千餘石의增收를示하엿다고

全蔚珍大講演會

時日 二月十五日午後六時
場所 蔚珍濟東學校講堂
入場料 無料
主催 우리同盟
後援 蔚珍青年會 蔚珍勞働組合 近南靑年會 蔚珍村振興會 …朝鮮日報蔚珍支局

地方經濟

元山貿易國別

…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Jan. 31st, 1926.

SYMPATHETIC TEARS FOR A STUDENT FRIEND.

By Choi Chung Wan.

IV

They sent back a reply that there was no money to give him for his educational and boarding fee. You may imagine how disheartened he was. On knowing the horrible condition in which my friend is, I could not help from shedding tears of sympathy.

I went out to take a walk with him towords the river Han in order to make him feel relieved. On our way to the river, though I gave him all the words of comfort I could,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accept them because his mind bore the economical oppression too heavily. In time of such a condition, he could neither hear my words nor feel the presence of his friend near him.

For some moments he was sobbing. I said, "you would do wrong to feel so miserable about your study, even if there were no hope of studying". When he looked up and said with a sob, My friend, I have been very miserable till this moment, yet I will be happy because my youngest brother will be sure to succeed in stead of me. From this time on I will give up my study at the expense of my life for the study of my youngest brother. Then he broke out cheerfully into the following song,-----

ALL the way my Saviou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I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英 文 欄

동정의눈물(完) 崔琁完

疑雲重疊한 勞農의同情金

보냇다는통지는루차잇스나 와야할돈은자최도업슴으로

農民組合員의向露準備

작년수해때에 로농로서아 적노동맹(赤露職業同盟)으로부터 삼만「루블」(留)을일본농민조합(日本農民組合)을경유하야 북풍회(北風會)에보내달라는통지만잇고아직까지돈은도착이되지아니햇다함은긔보한바이며또작년십월에 역시전긔 동맹으로부터금만「루블」을두번이나보냇다든통지가 일본농민조합에와 본사에도착되엿스나돈은역시도착되지아니햇슴으로전긔북풍회간부는일본대판에 건너가서 농민조합에 질문하엿섯는데 도시돈이 도착되지 아니햇는것이 사실이엇슴으로 농민조합의가부 안등(安藤) 국송(國松)량씨는 직접 로서아에가서 조사할방으로 방금려행권을 청구중 이라더라

成川市場問題

市民이變更陳情

지금와서지의한곳의장소는 수천의생명을위협한다고

성천읍(成川邑)은 호수가 륙백이나되고주민이 삼천이 사는곳인데 그들은 거의다 상업(商業)으로 호구지책을 강구하야온는터인바 지금와서지의당국의시장시설은불공한 점이만하 경제핍박을밧는그들에게는 더욱이생활난이 닥쳐와서 당처업시류랑의길을 떠나지안흐면 아될비참한 경우를당하게되엿는데 그것은

한국시대 에는삼개소의 시장구역이 잇서 매시일마다번가라가면서 개시를 하엿슴으로 아모 불공평이업서 인민들은도 혀 아모걱정도업시 그럭저럭지나온것인데 지금의 시장은읍 내중앙에잇서 사오십호되는 그들에게는행복이되나그남어지수백호수천명에게는 오즉 한숨을 짓게하여온것임으로

이름변경 하자는의론이 빈빈이잇섯스나 이를 말하는 주동자(主動者)가업서서유야무야에 살어지고 말엇슬뿐이엇더니근일에이를 방관할수업다 하야 성천선장 김현종(成川船長金顯鍾)씨는 이를해결케하려고만흔 고심을하엿슴과 수백명의 동의를 어더 군당국의 시장변경을진정하게되엿다는데

군에서 도 이를동의하는 모양임으로 불원간 실현되리라고 일반는 곳실현되기를고대한더다라(성천)

地主移動頻數과 小作人의不安定

안주내에서도립석면이우심

안수군(安州郡)의재무과토디사부취급통계에 의하건대 작년일년동안 안주관내의 토디매매로생긴 납세자이동건수가 칠천륙백이십건이요 이에대한 토디면적이 던답 약일천칠백여뎡보에달하는바 이만한토디의 소유자가변동됨에딸하자작농(自作農)은말할것업지마는 소작농에 이르더는디주의 임의와 소작인의환롱(幻弄)으로인하야

소작권의 변동을면할수업는바 상세한통계는 알수업스나납세자이동(納稅者異動)수로보아 소작권을빼앗기는 부분이삼분의일이못된다할지라도그면적이 실로륙백뎡보에 달한다임으로 왕년도안주군 일반소작농의생활상위협을바든것이불소하엿슴을 헤아릴수잇는동시에 지난해안주김익홍(金益弘)씨소유인연으면

소재도디 를녕변(寧邊)어떤부호에게 매도할때에 전소작인의 소작권을예울가 념려하야 자긔돈으로토디갑을 보조하야가며 후정을대인일까지 잇섯다는데 엇잿든던년히디주는 토디를아니 팔수입게되고 작인도 소작권박탈을 면할수업시 되여가는 현상임으로 소작농민의불안이 막심할것을 추측할수잇는등 소작농이대일만흔 립석면(立石面) 소작인들은 더욱생활이 안정되지못하야 공황이심하다더라(안주)

전남광주신광청년회창립총회(일번긔사참조)

生活難과 良心의싸홈

결국우절도로 잡혀가서취됴

평남강서군 부림면함남리 한룡효(平南江西郡普林面咸南里 韓龍孝)(二一)는어린처자들은 사오인이나되는데 가세기 빈한하야 살어나갈길이 업슴으로 마츰내 지난십오일 동리최재현(崔在賢)의곡간에서 수수서말빈을 훔치가지고 자긔집으로 도라오다가 량심의가책이되여 내가비록 가난하야 먹을것은업스나 남의 물건을 훔친은량심에 북그러운일이라고 후회한후송밧석이에 숨겨두고 자긔집에도라와서 안해에게 전후이야기를하매 그의안해도 역시가당차아니한일을 왜할필요가 잇느냐하야 피차마음에 조조히지내든바 몃칠후그동리아이가 새를비러갓다가 우연히 이것을발견하고 즉시동디경찰관 주재소에고발한결과 마츰내 탐지하바되야방금 동군경찰서에서 취됴중이라더라(강서)

正義女校에서도 生徒가教師排斥

음악을담임한선생두명의 태도가불공평하단리유로

평양고등보통학교학생이 교원배척문데로 학교당국에 진정서를데출한것이 며칠이 못된이때에 또한편 평양정의 녀자고등보통학교(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도일이학년학생권부가동맹하야동교음악담임최(崔)선생외한선생의배척운동을 이르켜 삼십일에진정서를 데출 하엿다는데원인은교수상불공평한덤이만헛든까닭이라더라(평양지국뎐보)

生活難으로 妻子를揮淚相別

생명인소작권이 떠러지고 살수가업서리혼을하얏다

전북남원군 산동면대그리 리필문(全北南原郡山東面大基里 李必文)(四一)씨는지난십일경에 이십팔세된 어엽분안해와 세살된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서작별하엿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데 리필문씨는 부호박희주(朴癩柱)씨의논두발탁을경작하야 근근히연명하야오든중 원호의과실업시 그사음조윤명(曹允明)의물락으로 소작권 이몽리박영섭(朴永燮)에게 가게되매리필문씨는 호소할곳이업시 처자를불러 말하되 만일나를잇고잇스면 삼인이일시에 굴머죽을터이니 부인은녀자의몸이라 보호자를 맛나기쉬울것이오 세살된아이는 부인에게맛기니 이집을떠나 다른보호자 곳남편을구하야 생명을도모함이 조켓다하고눈물로 서로작별한일이 잇섯다는데 이말을들은 모든인사는 이세상에 엇지니와가튼일이 잇느냐고놀라지안는이가업다더라(남원)

蓮池洞事件의 檢事求刑

홍연년우십년 그외는칠년식

시내련지동(蓮池洞)백십번디홍익표(洪翼杓)의집에군자금모집하려드러갓다가 동며문혁사 박용덕(朴容德)을쏘아중상을식힌 련지동 권총사건(拳銃事件)에 일회 공판은 석간에 상보하엿거니와 피고세사람에 대하야삼뎐촌(三田村)재판장의심리가끗나자복뎐검사(福田檢事)의론고에드터가 복뎐검사는

洪永傳 懲役十年
金鎭玉 懲役七年
金仲麟 懲役七年

의징역이 맛당하다고구형을한후변호사 김용무(金用茂)한상억(韓相億)량씨의 조리잇는변론이잇슨후 폐뎡하엿는데 판결언도는오는이월사일이라더라

光化門郵便局 六千圓橫領犯

돈을모아가지고엇든자와 자동차타고신당으로간듯

鐘路署員은新町大搜索

시내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집금원(集金員)야견봉(野見鳳)(三三)이가 지난 이십구일오후아홉시경에 우편국 자동차를 타고관내우편소로 도다니며공금륙천오백여원을모아가지고 다라낫다함은 석간본지에 긔보한바 어니와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시간을 다두어각처에수배를한후 범인수색에 노력중인데삼십일오후 일곱시반 경에는종로(鐘路)일뎡목 종로 자동차부(鐘路自働車部)운뎐수 두명을 불러다가 길뎐 순사부장(吉田巡查部長)이 됴사를하는동시에 계원을신뎡(新町)방면에출동시키어 일대수색을 하엿다는바 탐문한바에의하면 야견은 아홉시경까지 돈을 수집하여가지고 그외일본사람 한명과가티 동일오후 열시경에종로자동차부에 와서 백십칠호자동차를 타고 신뎡유곽으로간형적이 잇슴으로 그외가티활동을 개시한것이라더라

箕子教를創設

청주한씨문중이

청주한씨(淸州韓氏)문중의한치유(韓致愈)씨외 일곱명은 최근에이르러긔자교(箕子教)를창설하고시내경운동(慶雲洞)구십일번디에총본부를두엇다더라

祈禱를올려 나어논자식이

돈까닭에아비를 대면도안코피신

지난이십삼일 오전십일시쯤되야 경북상주군 공성면산현동칠백삼십칠번디 김천석(慶北尙州郡功城面山玄洞七三七番地金千石)의집에서는 전신이피투성이가된륙십여세의 로인이 무한한설음이 북바처 하날을울어려슬히통곡을하며 내가그자식을나흘때에 불전(佛殿)기도(祈禱)를하 나흔바 금지옥엽가티

길러내여 영화를보랴하얏더니 오날날이와가티 참혹한일이내앞에당할줄이야엇지꿈에나 생각하얏스랴 하며집헛든집행이를돌리여오든길로도리가랴고 하나울분한생각에눈물이앞흘가리워 촌보를옴기지못한 사람이잇섯다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은즉 전긔로인은 김천군곡송면보광동(金泉郡谷松面寶光洞)에잇는김흥성(金興成)(六三)으로

집안형편 어뎐부득이 자긔의장자인 김팔용(金八用)(三二)을 칠팔년전에 상주군공성면산현동(尙州郡功城面山玄洞)으로 분가이거케하얏스나 넉넉지못함으로 한푼의 돈이라고는 어보내지 못하얏든바 팔용은 이래 칠팔년동안을두고 로력하야 수천원의금전을 모핫고 그의친부인 김흥성은 칠팔년을 살어오는라고 채무가

수백원에 달하야밤낫으로 려정하든중 근일에와서는 채권자 (債權者)로부터 더욱독촉이심함으로 전답을방매하고또는 친우(親友)들에게 몃십원식구걸을하야도 수십원이 부족함으로 지난십일경에 팔용에게와서 전후사정을말하고 다만몃원이라도 보태주면 눈보라가 사정업시 나리는 이엄동에 늙은아비가 방한간이라도 거처하겟다한즉 팔용은 돈이

어대잇소 할셈만아니라 내가분가할때에엽권한푼이나주엇소하고 됨대로거절함으로 자식에게이말을들은 아비는 할수업시 쓰린가슴을부비며 눈물을지우고 자긔집으로도라가서 아모리생각하야도백계무책임으로 또생각하기를 그래도아비와 자식사이니 남보다나흐리라 전번에는그리하얏드라도 이번에는 그리지안켓지하고지난

이십이일 에무한한욕망을 품고집을떠나팔용을바라고오든에조롬이석괴항인지불행이어름에밋그러저얼골에만흔상처를내여가지고그의의자인김천석의집에서 하로밤을지내고 이튼날아츰에 긔별한즉 팔용은들은체도아니하고 멀리혓집을 감추어 중상을당한아비를 대하지도아니함으로 로인은 그와가티눈물을흘리고 도라가게된것이라더라(상주)

朴壽福의死는

強制早婚의弊害에 헤매이며우는

다수청년남녀의원한을 한데뭉처여완고부로의 머리를세치인죽음이다

개성(開城)송도 고등 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에학적을두고 개성북본뎡에살든박수복(朴壽福)이라는 스무살먹은학생이 자긔의 마음에업는 안해를리혼하고저하다가 완고한 부모의반대함에 못이기여드듸여 이를비관하고쏫가튼젊은목숨을 양재물을 마시고끈헛나 학창에몸을던져 학업을 닥고잇든

유망한 청춘청년으로서 목숨을 끈키까지의 그의생활에는실로이러한 비밀과 애화가석기여잇섯다한다 우리의결혼(結婚)제도는 실로너무나참혹하엿다 아들과딸들은 장가를들고시집을가거나 말거나 그아버지와 어머니되는 사람들은자긔의 생각만잇스면 바로일측안이 며느리를어더드려

가지고 아들딸낫는것을 큰영광으로나 생각하고 그저 덩히노코서 그당사되는 아들과 딸들의 의사는 조금도헤아려보지아니하고 가혹단으로 장가를보내고 며느리를 어더드려왓다 아!이것이 무슨부지럽슨일이냐? 하다못하야 담배한갑을 사서먹는데도

자긔의 마음에 들고비위에맛는것을 가리여가면서 사는것인데 이것은하물며 한평생을 죽는날까지 가티보낼 부부관계(夫婦關係)를 매커주는결혼(結婚)을엇지하야 그당사자들의의사는 조금도헤아려주지 아니하고 전혀 그아버지나 어머니들의독단으로 결뎡한것으로서 엇더케 그 압길이 평안하며 또한

행복이 잇기를 뜻하야보고 바랄수가잇스랴 오날날우리사회에서 능히그수를 헤아릴수가업시 빈빈한 리혼사건을비롯하야 극도로타락된 남녀의생계의 풍긔와 팽창한축첩제도(蓄妾制度)며또는 전민족뎍으로 어른과어린이할것업시 비참하게도 퇴영(退嬰)된 허약한데침은

강제덕 조혼으로말미암아서 일어나는비극이라는것을 무엇보다도 웅변뎍으로 증명하고잇다 아!이러케참혹한 강제뎍 조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엇지할수업시 몸을망치고 목숨을끈하야버리지못하고서 그만희생이되여바리는 불행한사람들이 오날날 우리사회에 얼마나만흘라 이에말하고저하는 앗가운 죽음을잇고말은바

수복의 죽음이 이의미로보아 엇지하야박수복한 사람의죽음이라고 할수가잇스랴 러어도 박수복의 죽음은 오날날우리사회에서 이강제뎍조혼에 유린이되여 울고헤매는 수만혼젊은남녀들의 모든원한(怨恨)과 하소연을한데뭉처여다가 지나간시대의 유물인 완고한부로(父老) 들에게 내던지여

그머리 를때처고커한 권사자이다 개성은 조선에서조혼으로 데일유명한곳이다 개성에태여난 박수복은 개성의풍속대로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즉 그가 열여섯살되든해에 그의아버지와어머니는 사방으로 중매를노하서 뎍당한규수를 골러보아 계성 남본뎡사는 리청녀(李姓女)라하는 그때

신랑과 동갑이되는 처녀를 이만하얏스면 떠힘나위업것다하는 극진히만족한 마음을가지고서 마커드리여 신랑되는박수복이와 화촉의쳐련을 거행식혓다 그때박수복은 아무런한줄도모르고 안해가무엇인지 녀편네가무엇인지다만아버지와어머니가시키는대로 노리개시감이되여서 얼마동지나게되엿다 그러하야

한해가지 나고두해가지나 한살두살나희가 차차만하지고 이에따라또한 보통학교를마치고 고등보통학교에를 들어가게되야 비로소철이나고 안해라는것도 엇더한것이라는것을 리해하게되야 우리의안해는 우리가찻고우리의남편은우리가구하여야할런인데 자긔는 이미아버지와어머니가 안해를 어더노코것을생각하고는 비로소 번민이일어나기를시작하엿다(계속)

染病으로不安中에 豫防注射로尤不安

강화군민의가진불안

강화군 량도면건평리(江華郡良道面乾坪里)에장질부사가 발생하야 만연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검역키 위하야출장하얏든당디경찰서주부(酒部)경부보도 장질부사에 걸리어사망하얏슴으로 읍내까지 만연될가 념려하야 당디경찰서에서는 지난 이십팔일부터 서원일동을총출동 식히여 장질부사 예방주사를 시행한다는데 이에엇더한경관은 이러한것을 긔회로아는지 집집마다 아모말도업시함부로 막드러가며 또는구쓰도벗지아니하고 마루또는 방으로드러다니면서 주사를 맛지아니하면 당장에포박하여 잡아갈터이니 어서가라함으로 이에부녀들은일하든 의복을 가리입고가겟다 고하는것을 「옷이 무슨일이냐」고하야 그대로막다리고갈뿐만 아니라 주사를맛고오는사람들을붓고 주사 마젓느냐고 물어서마젓다고하는것도 이치운날동안을 붙들고 로상에서 옷을막벗기여보는등 폐해가 만흔바 일반은심히 불만한중에 더욱불안하야하더라(강화)

面長의遞任과

면민의불평

경북문경군 룡암면(慶北聞慶郡龍岩面)에서는 요전면회계가대임될때에 문부수수가 끗나자지금으로 부러사면권에 업서지온돈륙십사원이 발각되자 그익일에몰연히 군으로부터 권고사직하라는 공문이도달되야 그돈을곳준비중에 잇든김면장은 부득이그자리를 떠나게되엿다는데 면과 군의거리가 오리이상이나되는동안에이가티 신속한 처분이잇게된내용은 그리면에 면장을운동하는자의 소위이라고 일반면민들은 그야박한 행위에매우주목한다더라(상주)

日人獵客이 樵童을誤射重傷

꿩으로알고쏘앗다고 피해자는생명이위독

경주군양북면감포항필뎐총오랑(慶州郡陽北面甘浦港匹田總五郞)(四一)이라는 일본사람이 지나간 이십팔일에 전긔 오류리 해등령(五柳里海登嶺)에가서 산양을하는중 그날오후네시경에 마츰 그산에서 나무를하고잇든 경주군 양북면감포항 김영조(金永祚)의장남김판종(金判宗)(一九)을 꿩(雉)으로잘못알고 총을노흔바 그이의가슴을 총알이뚤코 나갓슴으로 즉사하지는 아니하엿스나 방금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얼골에도총알박인자최가 잇다하며 그곳에서온 사람의 전하는말을들으면 전긔판종이가 총을맛고그리에서 넘이뛰니까 전긔일본인놈은멀리서쳐다보고 또 그것이살어갈가하야다시총을더한번노흔까닭에 더욱중상이 되얏다고하며 이소문을들은대구(大邱)의 의사(醫師)가 현장에달려가서 응급치료를 하는중이라더라(경주)

固城邑에窃盜

경남고성군 읍외외동(慶南固城邑外洞)전또인국(全又仁國)은 지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경에 도적에게 반지한개와 돈오원을잃어버리고 당디경찰서에 고발하야 동서에서는 사방으로엄탐중이라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전서먹고이웃간뒤에 그와가티 된것이라는데 그것은번도적이 아니고 이웃도적인듯하다더라(고성)

媤母를毆打致傷

여장사사탕장사해서 모흔살림을긁어먹고

전북금산군북면 동편리(全北錦山郡北面東片里)에사는 황하원(黃夏元)(?)의 어머니 김청녀(金姓女)(五二)는 일즉이 남편되는 황문식(黃文植)이를 다시돌아오지 못할곳으로 리별하고 고흘노식모송청녀(宋姓女)(?)와두아들을 거나리고 여러운살림을 하여오는터인데 그

식모되는 송청녀(宋姓女)는늦즉이 아들을 두지못하엿슴으로 전긔황천개시된 황문식(黃文植)을 양자하엿스나 빈난에견되다못하야 늙은몸을 이리저리 울고다니면서 엿(飴)장사사탕장사를 하야서 근근히 시가는백 오십여원되는 밧(田)한자리를 샀슬뿐만 아니라일백사십여원이라는돈을 인근농리에 사는 신실한사람들에게변리노히까지하는터인데 전긔양며느리김청녀(金姓女)가지난십팔일에사소한일로 식모되는송청녀(宋姓女)를 함부로구타하야류혈이 랑자하게한후에 그래도량심이붓그럽든지 어듸로다라나서 몃칠동안이나 남모르게 몸을숨기엇다가 집에도라와서 남모르게집과 살림을방매하고일즉이어

작만하야 돈밧한자리와 남에게 주어준돈 일백사십여원까지 몰수하야가지고 식모의눈을피하여서 자식들을다리고 충북옥천군 이원(忠北沃川郡伊院)으로 도망한것을 팔십이나된노파가 엇더케탐지하여가지고 지난이십칠일에 그곳까지와서겨우도망한며느리와손자를차저간즉김청녀(金姓女)는

도로가라 고함으로말봇할뿐만아니라 또매를마칠가겁더하야 그날밤도 쉬지못하고 찬바람을 무릅쓰고 밤길을 도로키여 가든길을도로오다가 늙은몸일뿐만 아니라 먹지도못한터임으로길가에업흐러저면상에 몹시면상처를 내여가며그이튼날에야겨우집으로도라온즉 몃칠살지못할몸이나 마엄동설한에 잘집이업스며 목구먹에풀칠이라도

할도리가 업슴으로하는수업시 몹시상한몸을 끌고삼십리나되는동면주재소(東面駐在所)와면사무소(面事務所)로차저가서 원수를갑하주시오 돈을 바더주시오하며 울음을 못니기여하는 그로파의참상은 사람의 눈과귀로는참아듯고볼수업섯다하며당면주재소에서는 상당한 처분을하리라는데일반은그사건에대하야 커분여하를 주목한다더라(금산)

日人移民家에 一日兩次의大火

방화의혐의가잇다고한다

경긔도안성군보개면 가사리(安城郡寶蓋面加士里) 일본인 야구청삼 (野口淸三)의집에는 지난이십륙일 오전두시경에 불이나서 약이백원가격인 집한채를 전소하고 그날정오에 또다시전긔야구청삼외에 일본인 이인으로서경영하는 정미소(精米所)에불이나서 약 천원가격인 건물(建物)을전소하는동시 ·천여원가격의 석유발동긔(石油發動機)까지 태엿슴으로 손해가 삼천이백여원에 달한다는데 발화원인은 아즉도 자세치못하나 전하는소문을듯든지또는

전긔야구 의아들의말을 들으면 엇던자의 방화나아닌지 몰은다는데 그의내용인즉 전긔야구외 일본인오호가 일본이민(日本移民)으로 당디에 드러와 거주하면서 그부근조선인의 소작권(小作權)을 모다빼아서 농사도 굉장히하고 또는고리대금(高利貸金)에 종사하야 그부근원래 조선인은거의다 그자의채무자(債務者)가되얏슴으로

소작권을 빼앗기여거의 죽게된 사람들을다시 고리대금으로써 빨리게되는바 그의가혹한행동에 원한을품은 당디주민과는 감정이 조치못하야 반목질시로지내오든터에 그와가티 하로에두번이나 불이낫슴으로 혹 엇던혐의자의 소위나아닌가 의심중이라는데 이가큰불이 두번이나나서 집두채가 전소하도록 당디주민의구원은 한아도업섯다더라(안성)

술주정으로 婦女다리고

나종에는사과

경긔도김포군양촌면양곡주재소(京畿道金浦郡陽村面陽谷駐在所)에근무하는 순사부장 (巡查部長)추뎐(秋田)이가 일전에엇던집회갑연회에 가서 술이대취하야 도라오는길에 길가는사람을함부로 구타하야 그중에도대곶면류현리(大串面柳峴里)이백사십구번디 최익영(崔益榮)씨의처황씨(黃氏)(三五)라는부인은엇더케몹시 마젓든지 생명이위독하든바

그후로도 황씨는조금도 낫지는안코 점점더하야 식음을전폐하고 실로생명이 위급하게되야감으로 그남편되는 최익영씨는 아모리무식한 농민이지마는 그대로참을수는 도저히업다고 고소를 데긔하랴고 하는차에 양곡 주재소로부터 추뎐부장 (秋田部長)과 문순사(文巡查)가친히 황씨(黃氏)의집까지 나와서 자긔의잘못된것을 사과한후에 고소를

말어달라 고하면서고소를하드래도 당신에게는 조금도리익될것이 업슬터인즉 고소를말고잇스면 우리가 약속하야서나흘때까지 치료를하게다고 말한후에 의생(醫生)정운룡(鄭雲龍)씨를보내여 진찰케한후약(藥)여뎝첩과 웅담(熊膽)삼푼중(三分重)을 보내여 그약을먹은후부터 조금식차도가 잇다는데 그후로 추뎐부장은 고기나사서먹으라고

돈이원을 보내면서자긔의 잘못된것을 사과하얏다 더라(김포)

里有財産處分

구령에서간섭

안주군룡화면룡연리 (安州郡龍花面龍淵里)리민사십삼명은 리유재산(里有財産)이든 현금일천칠백이 십륙원칠십삼전을작년봄에 매인압해 사십원식나호아먹은일이잇는데 전긔금액가운데는 리민의관계가업는 이전엇던과부두명이자긔죽은뒤에향화(香火)나매년하여달라는뜻으로리중에 긔부한부분이 잇는것을알고 현재안주군령에서는 그것이 리유재산처분 규뎡에위반되는일이라하야 경관과 협력됴사중이나 내용이상세치못하야 별문데는될것갓지안타더라(안주)

穆稜婦人會 歌劇盛況

학교를위하야 이틀동안계속

중국길림성목릉현(中國吉林省穆稜縣)에 헛더져잇는우리동포의생활은 소학교하나를 잘경영할수업을만치 곤난한중인데 당디에잇는 부인회에서는 이학교경비의 만분일이라도 충당키위하야 지난십륙십칠량일에 로서아사람의 극장에서 연극을하얏는데 관람인은 립추의여디가 업시차엿섯고 간간이나오는어린이의가극(歌劇)에 우뢰소리가튼 박수소리는 극장을울리엇스며 극이 끗나자로서아인의무도(舞蹈)도잇서빈권중을 깁부게 하얏는데 이량일의실수입이칠십여원이엿다더라(목릉통신)

敎人大會에서 紛糾始末을聲明

이번문데는이삼인의 고의로서난문데이다

긔보=성천군아파(成川郡阿波)교회의일대분규가 일어나서 모든사람의 주목의 초점이되여잇다함은 이미보도 하엿거니와이에대하야 그곳에잇는 수백교인들은 이문데로인하야 교회까지 오해를밧게됨은 붐감하야림시 협의회를열고 분규의내용을사회에 성명하야 그들의립장을명백히하고저 아래와가튼 선언을하엿더라

一、今番事件은何等教會의紛糾로誤解케하며朴昌彬氏의處地는相當하다認하는同時에今後더욱信任할事

一、今番事件의責任者인李永鍾朴昌彬等의罪惡을宣布하야그들의反省을促함事

이상과가티박전도사(朴傳道師)를더욱신임하는동시에문데가생겨난 로동상조회(勞動相助會)에서도그의회무를진행하게되여금번의불상사를일반에게알리게되엇는바이에대하야박창빈(朴昌彬)씨는 아래와가티 말하얏다 로동상조회(勞動相助會)는대정십삼년 사월칠일에 창립된것으로 회원이천명에 가까웟고회금은 불과백팔십원밧게 되지아니합니다 그것은 일반회원이회비를 납입하지 안헛슴으로처음으로 번제회과가티 사업을 하지못하엿슴니다 그럼으로 간부들이백원을 지출하야 그곳으로사업을하려고하엿스나 간부덕 돈을내지못하고 적은돈으로 사업을시작한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커는 동년구월에 경성으로가게되여 오륙개월후에 와서보니 회무를 리행하지 못하고 그돈도간부들중에 엇던사람이소비하고 말엇슴니다 그럼으로 벌금과 상행동으로라도 그돈을바더서 이회를유지하려고 위원까지 선택하엿슨즉 잘될줄로암니다 그리고교회의 분규사건은 교인대회에서도 성명한바와가티 그들의신앙이 타락되여그리된것이옵 나로서는 오즉회개하기를 기다릴뿐이요 하등생각이업슴니다하더라(성천)

◇集 會◇

◇新人同盟臨時總會 연강청년운동자(沿江青年運動者)신년간친회석상에서 신인동맹(新人同盟) 이창립되엿다함은긔보하엿거니와 그동안당국의 집회금지(集會禁止)로인하야여러가지문데중이든바 이제해결되여 삼십일일오후일곱시에 시내 마포동마포청년회관 (市內麻浦洞麻浦靑年會館) 에서림시총회를연다는바회원이만히오기를바란다고(고양)

◇中央教會日曜禮拜 삼십일일오전열한시부터 중앙례배당 에서「인지광」(人之光)이란문데로연사 최병헌(崔炳憲) 목사의일요례배가잇다고

◁第一回投票規定▷

每月一題 讀者懸賞投票募集

◇問題 어느商店看板이第一조흔낫가 (京城市內朝鮮人商店中에서)

◇賞品 一等(十八金腕時計一箇)一人 二等(廣木一疋)一人 三等(水木二疋)一人

◇投票 二月一日부터二月十五日까지 (本紙二月一日附부터連日揭載하는投票用紙에)

◇方法 投票數最多點을得한商店의投票中에서 一等一人 二等一人 三等一人을抽籤함

◇抽籤 二月十八日에警官及中央靑年會幹部立會下에

◇發表 二月二十日附本紙紙上에當選者發表

◇無効 (一)指定한投票用紙以外의投票는無効 (二)一人의名義로十枚以上投票한는全部無効 (三)投票皮封에『懸賞係』라고特書치안는것은無効

◁朝鮮日報社▷

滿洲踏查(28)

李涵

十二月二十一日은天氣가흐리고눈이약간색린다 黑石屯에서여러동무들과앗가운作別을하고湖山兄과가티『城場』이라는곳으로向하엿다 敎化로가는大路를왼손편에두고 西南으로小路를차저간다 안관無人境二十里나되는大嶺을 樹林속을헤처고넘어서니 中人의집二三戶가잇다 여긔에서 十餘里를가면 長이七十餘里가되고 廣이十里或八里식되는 大野가眼前에展開된다 滿洲벌판에이런大野가흔하지만은 보기에넘우도탐스럽고엄정난다 敎化로부터吉林까지노힐火車가將次이리로지날듯하다하야 敎化縣에잇는中國人商務會에서 二千三百七十三萬一千二百晌이나되는土地를 買收하엿다하며이土地를水田을하려고 今年春에韓人六十餘名이모히여「논보」(논물내러오는도랑)를만들다가 日間서中止하고今秋에다시起工을하얏는데明年에는完全히引水가되야水田이되리라하며 이商務會의土地오른쪽으로荒地로잇는데그것도將次全部水田이될모양이며 그商務會土地의아래쪽으로 中人個人의所有土地二百餘晌(每晌二千八百八十坪)을 同胞들이合資하야三千元에사가지고作定하엿다한다이大野의西面에는高하고아릿다운山들이몰려잇고 湖水가大野南便을繞하야東流하는바 水邊에 同胞人戶가살고잇스며 水田에十戶가잇는데 모다商務會土地에水田을하엿다한다 이土地의小作人의同胞들은 每年秋穫時에米一石(四百斤)과斑豆一斗와薪二十斤을農價로바치고 所作稍子를半分하는것이라한다 穀價에兩積十二十石(每石二百斤)식낫다하며 農夫一人이二晌식 지어먹는다하며 每石의價格은金貫로五元假量이라하니 每人所得이二百元으로부터三百元까지될것이다 가장희한한것은한아본것은 어름속에서박축가른川魚를無數히잡아내는것이다三十餘里를樹林속으로흘너여이런別有天地가어대잇스리라고는생각도아니하엿다水南村에잇는李傑君은여러해동안을가진苦生하다가임으로오래간만에나서서로처녀나보매 눈물이自然흘음을禁치못하엿다

十二月二十二日은天氣가매우치원다 城壁에서떠나東南으로五十里를간즉敎化縣街이다 敎化縣을縣만上으로考察하면 大渤太祖가처음에中京을두엇다가即今의寧安縣의西南六十里東京城이란地點으로옴긴것이니所謂舊國東三百里에옴겻다는것이며東牟山下에都하엿다한것을 滕源에는敦河承德縣에東牟山이잇다하고 滿洲源流考에는 奉天瀋陽附近에東牟山이잇다하엿스나 今番나의考察에依하면 敎化縣北十里許의 平地에兀立한高山이圓大特拔하엿스니이것이곳東牟山이다 東牟는中語로독등무』니即우리말로돌뫼의」(水甕)가티둥글어케 웃둑한山이란말이다 敎化縣北의[illegible]山은縣街에서보면 보이지아니하고縣街에서北으로 二十里를가서를더보면平地에 웃뚝소슨山이둥글어케『동외』가티보인다이것이곳 東牟山이다

滿太祖가처음에額多里城(中語로어뒤리청) 에都하엿다가興京으로옴기엿다한다 額多里城이곳敎化縣이며 朱鵲의瑞로天女가孕胎하야滿太祖가生하엿다則今의 鏡泊湖(其時渤他湖)이니 이것으로써 滿의發祥地로아는것이다其後에滿이 長白山周圍幾百里를封禁하는바람에開墾되엿다가 六十餘年前부터敎化가된것이다

내가八年前에한번이곳에오고또距今四年前에再次오고 그다음에第三次로 이번에온것이다 八年前이나四年前에는 城內에方冀成氏와金信根氏가 雜貨商店을經營하더니 이제은모다同胞의住戶가아홉중에 旅館이四處인데 權城銃의主人은李鵬翼 東興銃의主人은金致善이며病院이三處인바濟華病院 (金寅植)治病院(李常春)保生醫院(周述文)廣濟醫院(金柱山)이오金井照像舘이잇다

李顯翼氏는비록 初面이지만旣往부터 聲氣는相通이되엿다그豁達和悅 言動은將來가매우有望하다 金柱山은數十年동안無限히애쓰던 그歷史를가지고머리털이 아주허여케된것을볼때에感慨가無量하다

七年前即우리의큰소리가世界에들리기前年까지도 敎化縣全境에韓人戶數가 十戶未滿이엿더니 現在에는五百餘戶에達하엿다 다시十年만지내면 萬戶以上에達할것갓다 吉會鐵路가通하면 商業家가 北間島龍井과가티 돈이몰릴것이며輸出入의便利를따라 農產物도相當한價格을볼것이事實이다 旣往부터敎化를「穀庫」라고稱하엿나니이것은그肥沃한大野에서産作物이無盡藏으로나는것을指稱함이라한다 더구나우리同胞가水田을시작한後로는 地面의利가몃百倍가됨으로 中國人들이韓人移住를大歡迎하는것이다 그것이우리前途의幸福이라하겟다